

Naudé의 사서직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Naudé's Librarianship

남 태 우(Tae-Woo Nam)*

이강산다정(Kang-San-Dah-Jeo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사서직 활동 |
| II. Naudé의 생애 | 3. 도서관 사상 |
| III. Naudé의 사서직 활동과 사상 | IV. 결론 |
| 1. 도서관과의 인연 | |

초 록

본 연구는 Gabriel Naudé(1600-1653)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와 사서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연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도서관 사상을 이론으로 정립하였고, 그 사상을 3개의 도서관에서 실천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목적을 세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현대 사서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이 Ranganathan의 5법칙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audé가 도서관을 공개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한 보편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키워드: 가브리엘 노데, 사서직, de Mesmes 도서관, 마자랭 도서관, 도서관 사상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motivated Gabriel Naudé(1600-1653) to become associated with the library and how he performed his librarianship. He formulated his ideas into a theory, and put the ideas into practice through three libraries. Particularly, he established the goals of the library, and provided services in keeping with the goals. Such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st of a modern libraria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is ideas bear similarities to Ranganathan's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Therefore, this article carried out the study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from which Naudé had opened the library and provided user-centered services.

Keywords: Gabriel Naudé, Librarianship, de Mesmes library, le Bibliothèque mazarine, Ideas of library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kangsanyio@naver.com) (교신저자)

•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I. 서론

Gabriel Naudé는 역사적으로 근대 도서관학의 개조(開祖)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사서이자 의화학자이며 서지학자이자 자유사상가이다. <le Bibliothèque Mazarine>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제도를 실천한 근대도서관의 사상을 수립하였고, 개가식 서가를 운영하였고, 장서수집의 원칙을 세우고, 검열에 반대하였다. 또한 독자적으로 분류법을 개발한 실천가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Naudé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내에서는 Naudé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저서와 도서관사상 및 분류체계에 관한 내용이 단행본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 논문으로 연구된 것은 없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Naudé를 편찬자로서 또는 Mazarin 추기경의 사서로서 연구한 논문이나 그의 많은 논문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만, 내용은 도서관학의 학자사서로서의 '사서직(librarianship)'에 관해 연구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학 학자로서 Naudé를 고찰하여 '사서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사서직'은 Naudé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Naudé의 생애와 그 다음으로는 Naudé의 도서관 학자사서로서의 업적에 대해 문헌을 참고하여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고, Naudé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학 학자로서의 Naudé의 영향과 중요성을 고찰하여 Naudé의 사서로서의 가치를 밝히고 의의를 재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Naudé의 생애

이 장에서는 Gabriel Naudé(1600~1653)의 교육적, 일반적인 생애만을 보고, 다음 장에서 사서로서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Naudé는 1600년 2월 3일 프랑스의 Saint-Médéric 교구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Gui Patin과 Nicéron이 그의 가족에 대해 간단한 기록을 남겼다. Patin은 "Naudé는 많은 형제와 조카가 있었다."고 기록하였고, Nicéron은 "그의 부모는 겸손하고 정직했다."고 기술하였다.¹⁾ 아버지 Gilles Naudé는 파리에서 재정부서의 관리원(bailiff)같은 하위 관료였으며, 어머니 Marguerite Descamin은 문맹이었다.²⁾

Naudé는 어린 나이에 종교학교인 Collège du Cardinal Lemoine에서 2년간 인문학을 공부하였고,³⁾ 1615년-1616년까지 귀족학교 Collège de Navarre에서 Claude Belurger 교수 밑에서 수사학을

1) Bob L. Mowery, Gabriel Naudé Librarian(Degree of Master of Arts, University of Chicago, 1951), p.10.

2) Jack A. Clarke, "Gabriel Naudé and the Foundations of the Scholarly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Vol.39, No.4(October 1969), p.331.

3)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612~1613년에 입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부했다. Pintard에 따르면, 무신론자인 Belurger 교수는 Naudé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종교적인 영향도 끼쳤다. 그는 그곳에서 학업하며 Montaigne⁴⁾나 Pierre Charron⁵⁾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모랄리스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⁶⁾

이 후 Collège d'Harcourt에서 Pierre Padet 교수로부터 논리학을 배우고, 1618년에는 Jean-Ceeile Frey 교수 지도로 형이상학을 수학하였다. 다음에는 일 년 가량 Collège de Clermont에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1620년에는 '7자유교과'를 수료하여 문학석사학위를 받았다.⁷⁾

이처럼 그의 부모는 그의 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진로를 고민하였다. 부모와 친구들은 신학이나 법학을 전공으로 정하여 신학자나 법률학자가 되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였으나, 대부인 Gabriel de Guénégaud⁸⁾의 후원으로 의학 과정을 밟아 René Moreau의 지도를 받았다.⁹⁾ 신학이나 법학은 국교인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야 했고, Naudé의 집안도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Naudé는 Navarre에서 Belurger 교수의 지도를 받을 때 무신론자 사상가들의 책을 통해서 종교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이런 성향은 과학적인 학문에 더 적합한 성격을 형성하였다. 이런 성향 때문에 Naudé는 회의론적인 모랄리스트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2년 여간 Moreau의 지도를 받다가 1622년에 지도교수의 사망으로 의학 연구가 중단되었고, 자금 마련을 하여 1626년에 Venice 공화국에 있는 Padua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Emilio Parisani, Giovanni Colle, Pompeo Caimo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3달 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 학업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학과 관련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한 후, 이탈리아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여 1633년에는 Padua 대학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학위 덕분에 프랑스 왕실에서 왕실 의사라는 명예직을 받았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여러 학회와 학술모임에 참여하여 꾸준히 연구를 하였다. 이 후 프랑스로 돌아와 사서로 일하다가 <프롱드의 난>으로 인해 스웨덴으로 몸을 피해 있었다. 난이 진정되어 프랑스로 돌아오는 도중 53세의 나이로 1653년 7월 29일에 북프랑스 Picardy의 Abbeville에서 사망하였다.

Naudé는 가족이 많았으나, "평생을 자신이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태도로 인해 결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밝히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¹⁰⁾ 그리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의사로 일을

4) 프랑스의 사상가·모랄리스트이자 프랑스의 르네상스기(期)를 대표하는 철학자·문학자이며 《수상록》의 저자이다.
 5)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설교자·신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몽테뉴와 친교를 맺어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6) Baert, Hannelore, Gabriel Naudé: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1627) Édition et commentaires(Wijbegeerte, Faculteit Letteren, 2006-2007)*, p.4.
 7) 중세의 교육과정은 문법, 수사, 논리 3교과를 수료하면 문학사를 취득하고,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학을 수료하면 문학석사를 취득하며, 전문학부인 법학, 의학, 신학을 수학하면 박사 학위를 받았다.
 8) 왕의 조언자이자 재무대신으로 Naudé의 교육을 후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9) Baert Hannelore, *op. cit.*, p.4.
 10) Gabriel Naudé, *News from France or, A Description of the library of Cardinal Mazarin, preceded by The*

보거나 병원을 개업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의학에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를 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다.

III. Naudé의 사서직

제II 장에서는 Naudé의 일반적인 생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Naudé가 어떻게 도서관과 인연을 맺고 프랑스 및 유럽에서 사서직을 수행하였는지 도서관적인 생애를 시대순으로 기술하였다. 그의 사서직의 활동을 통하여 도서관 사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도서관과의 인연

이 절에서는 Naudé의 도서관적인 생애를 시대순으로 기술하였는데, 특히 도서관과의 인연에 초점을 맞추어 사서 업무를 맡은 도서관으로 구분을 지었다.

가. Moreau 교수의 개인 도서관

Naudé는 1620년에 Moreau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지도교수가 소유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기록에는 없으나 의학교수인 소유주의 성격상 의학 장서 중심의 도서관이라고 추정된다. Moreau 교수는 그 당시에 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을 소유한 애서가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Naudé는 처음으로 그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사서직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가 Naudé의 도서관계 입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추측된다.¹¹⁾¹²⁾

여기에서 애서의 방법과 광범위한 독서편력을 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Naudé는 “젊은 시절 책을 좋아하는(bookish)” 성격을 보였다.¹³⁾ 이 시기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개인 장서를 지닌 많은 학자들이 있어 개인 문고나 개인 도서관을 소유한 인물들이 많았다. 이는 애서의 문화가 진행된 과정에서 발생된 결과들이었다.

나. 사서로서의 첫 입문을 한 Henri de Mesmes II 세의 도서관

Naudé는 1622년에 지도교수의 사망으로 학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 때 Henri de Mesmes II 세가 Naudé가 1620년 그의 나이 20세 쓴 『3월 혁명 반대 연설(*Le Mar fore ou*

Surrender of the Library(Chicago: A. C. McClurg, 1907), p.32.

11) J. A. Rice. *Gabriel Naudé 1600-1653*. Baltimore, Md., The John Hopkins press; London, H.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p.10.

12) Bob L. Mowery. *op. cit.*, p.11.

13) *Ibid*, p.10.

Discours Contre les Lisbelles)』¹⁴⁾ 논문을 보고, 개인 도서관의 사서로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de Mesmes는 파리 의회의 의장으로 금융과 정치 분야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Naudé가 도서관을 바로 맡게 된 것은 당시의 사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없었고, 학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evil Dewey가 1884년에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에 도서관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사서직에 관한 교육이 따로 없었다. Naudé가 도서관 사서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도교수의 도서관에서 사서업무를 경험해 본 덕분이 아닐까 분석된다.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박사과정 동안 지도교수의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사서의 업무도 같이 맡아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서로서 첫 발을 들여놓게 된 Naudé는 4년 동안 de Mesmes의 사서로서 도서관을 17세기 초기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개인 도서관 중 하나로 육성시켰다.

다. Bibliotheca Ambrosiana, Bodleian Library

1626년 Naudé는 의학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Padua 대학으로 가던 도중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Milano의 <Bibliotheca Ambrosiana>를 방문하게 되었다. <Bibliotheca Ambrosiana>는 밀라노의 수호 성자인 Ambrose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1618년에 밀라노 대주교 Federico Borromeo가 그의 수집품을 기반으로 도서관과 미술관을 함께 설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혁신적인 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서가를 벽면에 따라 위치시켰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시에 도서를 많이 소장하고자 한 방법이었다. 둘째, 1609년 12월 8일에 Sala Fredericiana가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열람실을 공개하였다. 당시의 도서관은 도서를 독서 테이블 위에 체인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도서를 서가에 배열한 방법’은 개가식 도서관의 초기 모델로 나타났다. 이 방법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은 장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서가를 훑어보면서 생각지 않았던 도서를 찾는 재미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도서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개방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처음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dé는 <Bibliotheca Ambrosiana>를 방문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Naudé는 자신이 공부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저작을 위한 도서 수집을 위하여 노력한 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150여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고, 중국과 사마르칸트에서 제작된 종이가 1200년경부터 수입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도서의 값이 매우 비쌌고, 희귀 서적이거나 원고를 구입하기는 어려웠다. Naudé는 희귀 장서나 논문을 많이 소장하여 “대중은 공공의 복지와 개인적인 안락함을 선호한다.”고 말한 <Biblioteca Ambrosiana>에 있는 사서의 많은 장점을 참고하였다.

14) Gabriel Naudé, *Le Mar 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Paris, L. Bovelenger, 1620).

동시대의 다른 유명한 <Bodleian Library>에는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기에 문헌에서 보거나 풍문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odleian Library>는 영국 University of Oxford의 도서관으로 1327년에 Worcester의 주교 Thomas Cobham이 설립하였다. 1550년 Edward VI세 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를 압수하고 독서대도 철거하였다. Oxford의 교수 Thomas Bodley¹⁵⁾경이 부총장에게 도서관 재건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5년간의 장서 수집, 건물 개조, 자금 모금 결과 1602년에 2천권이 넘는 장서를 갖춰 도서관 재건하여 책임자였던 Bodley경의 이름을 따서 <Bodleian Library>로 개관하였다.

Bodley는 서적출판사(Stationers' Company)에서 출판된 모든 새로운 도서 1부와 초기 판권본(early form of copyright deposit)을 도서관에 제공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것이 저작권과 납본제도¹⁶⁾의 기원이다.¹⁷⁾ 그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탁하도록 유언하였고, 이후에도 도서관에 대한 후원이 계속 되도록 하였다. Naudé는 1627년에 작성한 저서에서 Bodley를 3번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Bodleian Library>의 성공적인 운영과 장서량, 개방된 도서관 등 Bodley 사상에 받은 영향을 증명하였다.

특이하게도 <Bodleian Library>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Charles I세와 Oliver Cromwell 조차도 도서 대여를 거절당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직 도서관 내 열람실에서만 책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일반인들에게는 제한되어 있고 회원들에게만 허가되었다.

이것이 Naudé가 Bodleian 도서관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도서관을 모든 학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 Henri de Mesmes II세의 도서관

1626년에 잠시 이탈리아에서 의학공부를 하다가 그해 말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프랑스로 돌아온 Naudé는 다시 de Mesmes의 도서관 개인 사서로 들어갔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과 의학, 정치 분야에 관련된 저술활동을 하고,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 이 때 저술한 『도서관 설립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사서직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Naudé는 사서로서 학술적인 연구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De Thou 도서관에서는 Hugo Grotius, 후에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의 대표가 되는 Lucas Holstenius, De Thou 도서관의 사서 Dupuy 형제와 친분을 쌓게 되어 철학과 종교를 논의하였다.¹⁸⁾ 또한 Gassendi,¹⁹⁾ La Mothe Le

15) Sir Thomas Bodley (1545-1613) 영국의 외교관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며, 보들레이언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16) Copyright Act of 1709

17) 남태우, 김상미,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 셰라(H. Shera)의 사상을 중심으로(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p.146.

18) Jack A. Clarke, *op. cit.*, p.332.

Vayer²⁰)와 함께 “어리석은 불신앙에 대한 투쟁(lutte contre la sottise incrédulit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올챙이(Tétrad)’라는 이름의 연구그룹을 만들었다. 이 연구그룹에서도 역시 철학과 종교, 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런 연구그룹 참여를 통해 Naudé는 철학과 종교학에 관한 지식을 쌓았고, 이런 활동은 Naudé를 철학과 종교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 추기경 Bagni의 개인 사서

1629년에 프랑스로 온 이탈리아의 추기경 Bagni 문고의 개인 사서가 되었다.²¹⁾ 이것으로 이탈리아의 추기경들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1630년에는 De Thou 도서관의 사서 Pierre Dupuy가 교황 대사 Bagno에게 Naudé를 사서로 추천하였다. 『도서관 설립에 대한 권고』의 사본을 보게 된 Bagno는 Naudé를 사서 겸 라틴어 비서로 임명하였다.²²⁾ 1641년에 추기경 Barberini의 사서로 재직하게 되었다.

바. Richelieu의 도서관

1641년에 프랑스 재상 Richelieu가 1426년 판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의 원작자에 관한 토론 중에 로마의 4개 주요 필사본의 진위를 가려달라고 Naudé에게 요청하였다. 베네딕트회 회원들이 이미 그것들을 진본으로 인정하였지만, Naudé는 4개 모두가 가짜라고 결론 내렸다. Naudé가 이미 서지학자로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Richelieu는 Naudé의 주장을 믿었고, 그의 학문적 역량에 감탄하여 1642년에 프랑스로 초청했다. 프랑스로 돌아와 도서관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해 12월 4일 Richelieu가 사망하여, 도서관 준비가 무산되었으나 장서와 함께 Mazarin에게 상속되어 <le Bibliothèque Mazarine>으로 승계되었다.

19) Pierre Gassendi(1592-1655) 프랑스의 물리학자,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이자 성직자로 스킨라 철학의 Aristoteles 해석 및 데카르트의 생득관념설을 철저히 반대하고,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을 부활시켜 원자론적 유물론을 주장했다.

20) François de La Mothe Le Vayer (1588-1672) 필명 Orosius Tubero를 사용한 프랑스 작가이다. 루이 14세의 교사로 활동했다.

21) wikipedia에서는 1629년 Rome에서 Jean-Francois de Bagni의 사서가 되었고, Bagni가 1641년에 사망하여 Francesco Barberini의 사서가 되었다고 하였다. Clarke는 1630년에 Guidi di Bagno의 사서가 되었다고 하였다. Rovellstad는 de Bagni와 Barberini의 사서가 되었다고 하였다. Kristeller는 1630년 Gianfrancesco dei Conti Guidi da Bagno의 사서가 되었고, 1641년 7월 25일 Bagni 사망으로 Antonio Barberini의 사서가 되었다고 하였다. Lemke는 Guido di Bagni의 사서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Rice는 Gianfrancesco de' Conti Fuidi da Bagno의 사서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1629년에 프랑스에 온 교황 사절 Bagni의 사서로 잠시 있다가 1630년에 역시 교황사절인 Bagno의 사서가 되어 이탈리아로 갔다가 Bagno의 사망으로 Barberini의 사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2) Jack A. Clarke, *op. cit.*, p.335.

사. le Bibliothèque Mazarine

Naudé가 1627년에 저술한 『도서관 설립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가장 잘 실천한 것이 Mazarin 도서관이다. 특히 저서에서 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Mazarin 도서관에서는 개관부터 공개와 보편적인 도서관이라는 목적을 세워 실천하였다. 이것은 Mazarin과 Naudé가 함께 상의한 도서관 목적이며,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우선 도서관 개관시간을 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공개목적을 분명히 하였으며, 개가식 서가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장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출도 하였다. 도서관의 자료는 번역, 해제 등의 2차 자료 제공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도서관 설립 목적에 맞는 장서관리정책을 세우고, 장서 수집에 참여함으로써 사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스웨덴의 Christian 여왕의 도서관

〈프롱드의 난〉으로 le Bibliothèque Mazarine 사서직에서 쫓겨난 뒤, Naudé는 1652년에 스웨덴의 Christina 여왕의 초청으로 Stockholm 궁정에서 왕실 사서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Christina 여왕은 Descartes를 궁중으로 초청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학자나 예술가와 교신을 하여, 학문과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Arcadia 아카데미〉를 창설하였다. Christina 여왕은 유럽 전역의 학자를 모으면서 Naudé를 학자로서가 아니라 사서로서 부른 것이었는데, Christina 여왕이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653년에 Mazarin 추기경이 복귀한 후 le Bibliothèque Mazarine 컬렉션을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 Naudé를 다시 프랑스로 부르면서 스웨덴에서는 1년간만 지내게 되었다.

2. 사서직 활동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 중 주요 도서관 3개를 다루었다. 그것은 Naudé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도서관임과 동시에 그가 생각한 도서관의 사상, 즉 '보편적 도서관상'을 펼친 곳이기 때문이다. de Mesmes 도서관은 사서로서의 첫 입문을 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추기경 Bagno 사서로 있는 동안에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Mazarin의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확립한 도서관 사상을 모두 펼치게 되었던 도서관들이다.

가. de Mesmes 도서관 사서직

de Mesmes는 이미 개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에 Naudé를 사서로 초대하였는데, Naudé가 장서를 정리하여 새로 〈Bibliotheca Memmiana〉라는 장서 목록을 작성하였다.²³⁾ 그 구성은 주요 고전 작가의 Aldus판²⁴⁾을 포함하여 대부분 독피지로, 화려한 삽화가 들어간 8,000권의 인쇄 도서로

이루어졌다. 인쇄 도서 이외에도 그리스어와 라틴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상당히 많은 수의 원고도 포함되었는데, 모두 선별하여 완벽한 상태의 원고였다.²⁵⁾

Naudé는 이 때부터 도서관에 관련한 저서를 쓰기 시작했다. 1627년에 이탈리아를 다녀와서는 최초의 도서관학 개론서 혹은 도서관 개관의 안내서나 설명서로 알려진 『도서관 설립에 대한 권고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이하 *Advis*……로 약칭)를 저술하였다. John Cotton Dana는 『*Advis*……』 1903년 영어판 서문에서 “그의 친구들이 요청한 사본들을 작성하고, 장서와 도서관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627년에 저술하고 출간되었다.”라고 작성 이유를 밝혔다.²⁶⁾

이 저서는 도서관의 간략한 역사를 나타내었고, 도서관 설립의 바람직한 동기와 목적, 운영방법, 장서관리, 문헌분류, 시설, 관리 등의 도서관과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후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저서에 나타난 도서관사상은 기초적인 근대 도서관사상, 서비스 등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서에 나타난 사상은 현재 세계의 도서관계에 보급되고 있으며, 이 도서관에서 Naudé의 사상이 성립되었고, 저술로서 표현하였으며, 후에 Mazarin 도서관에서 실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를 “도서관학사상의 개조”²⁷⁾라고 칭한다. 또는 “사서직의 아버지 (father of librarianship)”²⁸⁾, 진정한 의미에서 “사서의 사서(Librarians’s librarian)”²⁹⁾라고 칭한다.

Naudé는 장서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주제분류법을 선호하였다. 그는 신학, 의학, 법학, 역사학, 철학, 수학, 인문학 순으로 주제분류를 하고 하위항목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4개의 구분을 두어 하위 항목을 두었는데, 내용이 서가분류와 관련이 있다.³⁰⁾ 그러나 Naudé는 구분과는 별개로 조기성에 대하여 사서의 기억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de Mesmes의 도서관에는 약 8천권 정도의 장서가 있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장서를 제공하면서 조기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번잡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de Mesmes 도서관은 금융학자에게 개방하였으나 한정적인 개방이었다. 이탈리아에서 개방된 도서관을 보고 온 후, 여기서부터 도서관의 개가제를 실시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에는 개가제의

23) Clarke의 논문에 기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연도가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사서가 된 1622년~1623년 사이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4) 16세기 Venice의 인쇄가 Aldus가 발행한 판이다.

25) Jack A. Clarke, *op. cit.*, p.332.

26) Gabriel Naudé, *Instructions Concerning Erecting of a Library, presented to my Lord the President de Mesme*, edition John Cotton Dana, and translate John Evelyn. (Cambridge, Mass.: Printed for Houghton and Mifflin at the Riverside Press, 1903), iiiiv. and Antje B. Lemke, “Gabriel Naudé and the Ideal Library,” *Library Associates*, Vol.XXVI, No.1(Spring, 1991), p.40.

27) 椎名六郎, 岩猿敏生 共著, 圖書館概論(日本圖書館學講座 1), (東京: 雄山閣, 1977), p.183.

28) Bob L. Mowery, *op. cit.*, p.1.

29) *Ibid.*

30) Gabriel Naudé, *op. cit.*, p.66.

내용이 없으나, 『Advis……』의 내용에는 개가제 배가에 관한 내용이 잘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미 de Mesmes 도서관에서 제안하였거나, 실현하여 저서에 기술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도 이미 도서관을 금융학자들에게 개방했으나, 그 당시의 관례상 도서관 소유자의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장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므로 완전한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e Mesmes의 지위가 프랑스 의회 의장임을 고려하면 지인이 많았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Naudé가 이탈리아를 다녀온 후, 확장된 개방을 하여 도서관을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였다.

나. Bagno 도서관 사서직

1630년에 Bagno가 이탈리아로 귀국하면서 Naudé도 공식 가족으로서 함께 가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의학박사학위를 받아 의학연구를 계속 하였고, 사서로서 학회에 출입하면서 다른 학자들의 연구지원을 하였다. 또한 다른 도서관 사서의 청으로 1633년에는 정치학 장서 참고서지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Naudé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의 도서관과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Hugo Grotius, Hobbes, Bacon, Kepler, Galileo, Descartes 등과 교신하였다. 그는 Rome, Urbino와 Florence에 있는 <석학 아카데미>³¹⁾ 회원이 되었고, <로마 인문 아카데미>³²⁾를 통해서 Mazarin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문학 및 미술의 대후원자이자 1635년에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했던 추기경 Richelieu는 Naudé의 학문적 업적에 감명을 받고서 Naudé를 Paris로 데리고 돌아와 주요 도서관을 정리하도록 초청하였다.

학회를 통해 Naudé는 이탈리아 문학 아카데미와 프랑스의 학회 사이의 국제 네트워크의 연결자로서 행동하였다.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 학자인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충실하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문에 그를 서지학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의학 지도교수인 Moreau 밑에서 동문수학한 Patin은 최신 의학과 관련된 여러 책을 이태리어 간행물로 통지를 받았다. 사서 Dupuy 형제는 30페이지 가량의 교회 정치에 대한 내부정보를 받았다. 수학자 Marin Mersenne은 천문학자들이 관찰하기 위해 발명한 기술에 관한 내용과 자세한 설명까지 첨부하여 받았다. 또한 Marin Mersenne는 Orpheus가 숲의 작은 빈터에서 그의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그리스 그림을 받았다.³³⁾

역사가 Andre Duchesne는 참고 자료 서지와 몇 가지 희귀 자료의 소재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31) academy of savants.

32) Roman Academie degli Humoristi.

33) Jack A. Clarke, *op. cit.*, p.335.

통해 Naudé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도서관에 대한 밀접한 관계와 지식을 알 수 있다. Jacques Dupuy와 Pierre Dupuy 형제에게 쓴 편지에서, 문학 관보의 일종의 유명한 아카데미 회원이 읽을 수 있는 이탈리아 도서 및 저자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였다.³⁴⁾

이런 1차와 2차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람들과의 편지와 폭넓은 연락처를 통해 현재로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지원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는 논문에 관한 자료 제공을 하기도 하였다. Naudé는 Aix-en-Provence에 살던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골동품 전문가인 Nicolas Fabri de Peiresc에게 고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보내어 관리하기도 하였다. Peiresc는 고대의 중량과 측정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고, Naudé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탈리아 도서관에서 희귀한 고서를 찾아 그를 지원하였다. 원고를 찾아 도서 대출에 필요한 사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추기경 권력의 도움을 받았다. 더하여 저렴한 요금을 받는 필사자를 고용하여 희귀본 원고 사본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³⁵⁾

이처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사서로 재직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학자들에게도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희귀 장서를 필사하거나, 아카데미의 문집을 프랑스의 학자나 사서들에게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었고, 자신의 의견도 첨부하였다. 이런 서비스는 현대의 도서관에서도 원문제공서비스나 연구지원제공과 같은 서비스의 시초라고 생각된다. 특히 1차 자료와 더불어 해설, 해제, 평론, 리뷰 등의 2차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처럼 Naudé는 서지정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한 선각자였으며, 특히 해제자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자사서였다.

1633년에 프랑스 대사 M. de la Thuilerie의 사서 Jacques Gaffarel은 Naudé에게 정치 분야의 장서 목록 편집을 요청했다. 이 요청으로 Naudé는 최초의 참고문헌인 『Bibliographia Politica』를 작성하였다. 내용은 정치적 승진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편지의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참고서지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문헌이다.

정치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정리하면서 주제는 윤리, 경제, 정치, 종교, 상업 등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그룹 아래에 저자별로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³⁶⁾ 1641년 Wittemberg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1642년 Paris에서 『Bibliographie politiqu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를 통해 이 참고문헌이 여러 나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le Bibliothèque Mazarine 사서직

Naudé는 Mazarin의 사서가 되면서 도서관을 새로 설립하듯 하였다. Mazarin은 Palais Tubuef(이하 Tubuef궁)의 한 동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도서관 설립에 착수하

34) *Ibid.*, pp.335-336.

35) *Ibid.*, p.336.

36) Bob L. Mowery, *op. cit.*, pp.44-47.

기 위해서 도서관의 모토를 세우고, 장서를 수집하여 서비스 원칙을 수립하였다.

Mazarin은 Rue Neuve des Petits-Champs의 거대한 저택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1643년 10월 30일에 도서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의 전임자인 추기경 Richelieu와 같이 대중에게 자신의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Mazarin은 “모든 살아있는 영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그의 독자에게 “그들이 어떤 언어나 어떤 주제를 원하는 모든 도서를 제공하라.”고 Naudé에게 지시하였다.

이것은 Naudé가 지금까지 가졌던 도서관 사상과 Mazarin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Mazarin과 Naudé의 희망에 따라 이 도서관의 표어는 “독서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오라(Come in, all you who desire to read)”³⁷⁾라고 하였다. Naudé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도서관사상을 내보였다. 이 표어는 그의 도서관의 보편적 평등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식자율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절에 이 도서관은 연구도서관적인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었다. 뒤에 기술하겠지만 Naudé는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소설을 배척하였는데, 이 시절의 소설이 대부분 궁정 연애나 기사들의 무용담을 삽화를 중심으로 한 조잡한 그림책이었다. 그러나 Naudé의 어머니도 문맹이었고, 당시 식자율이 20%를 넘기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다. Mazarin 도서관이 학술도서관 또는 연구도서관 성격을 띠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Naudé는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방법이 ‘장서개발’에 있다고 생각했다. 『Advis……』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장서개발에 대한 내용은 도서를 선정하는 원칙을 세웠고, 장서를 조달하는 방법과 장서를 향상하고 증진시키는 방법도 다루었다. 특히 장서 수집에 있어서 시대, 장소, 규범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정책은 Bodleian 도서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³⁸⁾ 현재 국가 도서관의 납본제도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를 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내용은 <le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장서를 개발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였다.

장서를 수집하면서 Naudé는 Paris에서 도서를 중복에 관계없이 다량 구입하여 많은 양의 책을 빠르게 인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도서 수집에 집중적으로 나섰다. 한 예로 1643년 초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개인 도서관 중 하나를 인수 하였다.³⁹⁾ 그 후에도 Naudé는 장서수집 측면에서

37) Britannica Academic Edition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406634/Gabriel-Naudé?source=widget&id=2>> [cited, 2012. 5. 23].
38) Naudé는 소설 작품을 배척하여, Boccaccio, Cervantes, Rabelais 등의 소설작가 작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Naudé는 연극과 연애 소설류를 “시시한 순수(pure frivolity)”로 부르며 장서 수집에서 제외하였지만, 짧은 법정시나 몇 종류의 부수적인 구절(인용구)은 수집하였다.
39) 1642년 Limoges에서 사망한 Jean Descordes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장서수집에 엄격한 선별을 거쳤다. 그는 자신의 장서를 한 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주 정부 관계자인 Simon Dubois가 도서관의 주요 장서를 받아 구축하였고, Naudé가 이 장서를 넘겨 받았다. 이 장서는 folio(2절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도서관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는 책을 헌책 장사로부터 약탈하듯이 헐값에 인수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Mazarin 또한 도서를 수집하는데 대사, 정부관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강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le Bibliothèque Mazarine〉을 개관한 이후에도 Naudé는 연구도서관에 적합한 파리 서점과 출판사의 재고품을 모두 구입한 후, 광범위한 희귀 도서와 해외 출판물과 인쇄물을 수집하기 위한 여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약 2년여간 장서를 수집하였다.⁴⁰⁾ 그러한 그의 행동은 ‘위대한 책 사냥꾼(great book hunter)’, ‘위대한 책 도둑(great book kleptomania)’이라는 식의 자료 소장자들의 비판과 지식인들의 환영이 섞인 별명을 얻게 되었다.

1644년 7월에는 고대 지방에서 찾을 수 있는 도서와 역사 원고를 더 찾기 위하여 Flanders를 방문한 후, 이듬해 4월부터 이탈리아에서 거의 1년 간 서적을 찾아다녔다. Rome를 거쳐서 Florence로 이동하여 Romagna, Mantua, Padua와 Venice까지 방문하여 다양한 주제와 언어로 작성된 이탈리아의 도서를 구입했다. 1646년 1월 28일에 Valtellina Pass와 스위스로 떠났다. Gazette de France에서는 같은 해 3월 12일 파리에 14,000권 이상의 도서와 원고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¹⁾

그 당시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진행 중이었지만, Naudé는 2년 여간 도서와 원고를 찾기 위해 프로방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방문했다. 1644년 7월부터 1647년 12월 말까지 Naudé는 40,000권 이상의 인쇄도서와 850권 가량의 필사 원고를 구입했다.⁴²⁾ 이렇듯 지역, 시대, 언어, 유형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도서관은 프랑스 사상 최초의 일반에게 공개한 도서관이 되었으며 연구를 목적으로 내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전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공개하였다.⁴³⁾ 또한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출 카드를 작성하였다. 〈le Bibliothèque Mazarine〉이 프랑스 사상 최초의 일반 공개 도서관이 된 것은 Mazarin과 Naudé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le Bibliothèque Mazarine〉에서는 80~100명의 학자들이 열람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들 중에는 후에 프랑스의 스웨덴 대사를 역임한 네덜란드의 법률학자 Hugo Grotius, Naudé의 친구인 프랑스의 철학자·물리학자·수학자이자 근대원자론의 창시자이며, 천체의 관측과 지중해의 수로도 작성에 업적을 남긴 Pierre Gassendi, 오늘날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말로 유명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Rene Descartes 등이 있다.

octavo(3절지), quarto(4절지)로 구성되었으며, 약 6700~7700권 정도의 규모이며, 대부분 가톨릭 사제와 역사가, 정치인,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 Jack A. Clarke, *op. cit.*, pp.337-339.

41) *Ibid.*, pp.338-339.

42) *Ibid.*, p.339.

43) P. Salvan, “France,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ew York : Marcel Dekker, 2003), p.39.

당시에 식자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상위의 지식 계층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적힌 도서를 대중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프랑스어 자체도 종교개혁으로 인해 성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중이 언어를 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를 글자로 읽을 수 있었기에 라틴어보다는 글을 이해하기 쉬웠다. 이처럼 Mazarin이 원하는 대중적인 도서관은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Naudé는 모든 독자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많은 편·저작 활동과 번역 작업을 하였다. 주로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장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프랑스 왕실 도서관도 장서를 바꾸기에 담아 선반에 쌓아두었던 시절에 Naudé는 도서관에서 사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3. 도서관 사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udé는 사서로 근무한 첫 번째 도서관인 de Mesmes의 도서관에서 사상을 수립하여, 그 사상을 저서에 반영하여 이론으로 정립하고, 이탈리아에서 사서로서의 서비스를 확립하였고, Mazarin의 도서관에서 사상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사서로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크게 도서관 운영,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측면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 볼 수 있다.

가. 도서관 운영 측면

도서관 운영의 원칙 중 가장 첫 번째는 장서의 수집이다. de Mesmes 도서관에서도 장서를 새로 정리하여 새로운 컬렉션을 구축하였고, Mazarin 도서관에서는 장서 수집을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였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의 목적을 들 수 있다. de Mesmes 도서관에서는 확실히 나타난 목적은 없으나, 『Advis……』에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장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성 전에 de Mesmes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목적을 확립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Mazarin의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오라.”는 모토를 도서관 정문에 명시하여 도서관의 목적을 공고히 하였다. 이 도서관 개방의 목적은 Ranganathan의 제2법칙 “Every Person His or Her Bbook.”⁴⁴⁾와 같다.

세 번째는 도서관의 개관시간의 확정이다. 기록상에는 de Mesmes 도서관에서 개관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Mazarin 도서관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3시간씩 개방한다고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Ranganathan의 제1법칙인 “Books are for Use.”⁴⁵⁾와 같은 맥락으로

44) S. R. Ranganathan,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2nd ed.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1957), p.81.
45) *Ibid.*, p.26.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개가식 서가 운영이다. 장서를 구축하고 도서관을 개방하여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서가를 개방하였다. 이런 서가 운영은 이 시기의 수도원, 대학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chained book system에서 책을 해방시켰다. 또한 이런 사상은 Ranganathan의 제3법칙 “Every Books Its Readers.”⁴⁶⁾와 일맥 상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료조직 측면

Naudé는 『Advis……』에서 분류와 목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Naudé는 주제분류를 선호했는데, 신학, 의학, 법학, 역사학, 철학, 수학, 인문학 순으로 분류를 하고 하위항목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⁴⁷⁾ 하위 항목은 4개의 구분을 두었는데, 내용이 서가분류와 관련이 있다.⁴⁸⁾

그러나 Naudé는 구분과는 별개로 배열에 있어서는 조기성이 사서의 타고난 기억력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de Mesmes의 도서관에는 약 8천권 정도의 장서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장서를 제공하면서 조기성을 사용하는 것이 사서에게 더 번잡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⁴⁹⁾

이런 생각은 1633년에 『Bibliographia Politica』를 작성할 때, 주제별 분류를 하고, 하위구분을 두었지만 조기성을 두지 않은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참고서지 내용을 통해 『Advis……』에 나타난 분류체계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Advis……』에 나타난 분류체계는 기초가 되었으며, Jaques Charles Brunet의 분류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목록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에 2개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지식 분야에 따라서 배열하여.... 다른 하나는 저자들의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야 한다...(중략)”⁵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는 주제명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저자명 목록이다. 목록은 사서가 장서를 기억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한 서지정보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제명 목록은 사서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진 문학을 학문의 독립적 영역에서 도서

46) *Ibid.*, p.258.

47) 1627년의 초판에서는 7항목으로 분류하고, 1644년 개정판에서는 신학, 의학, 서지, 연대기, 지리학, 역사학, 군사, 법률, 교회법규, 철학, 정치학, 문학순으로 12항목으로 분류하였다.

48) Gabriel Naudé, *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 introduction by Archer Taylor(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0), p.66.

49) *Ibid.*, p.26.

50) *Ibid.*, pp.77-78.

관이 소유한 작품들을 열거하는 것에 유용하고, 저자명 목록은 사서와 이용자에게 복본을 알 수 있고 차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Naudé가 정확한 용어로 쓰지는 않았지만, 목록의 기능 중 자료관리, 검색, 식별, 소재지시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을 사무용 목록과 열람용 목록으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록은 앞서 살펴본 도서관 별 활동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장 필수적인 사서의 업무로 꼽았으므로 de Mesmes 도서관 이후의 모든 도서관에서 작성하여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서지 도구의 사용은 Ranganathan의 제4법칙 “Save the time of readers”⁵¹⁾와 같은 맥락이다.

다. 정보서비스 측면

Naudé는 평생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다양한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알게 된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학회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프랑스의 학자들에게 원문과 함께 프랑스어 번역본, 해제, 서문, 리뷰, 평론을 작성하여 함께 보내주었고, Mazarin 도서관에서는 라틴어로 작성된 도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 즉 서지작성의 결과로 그를 ‘서지학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또한 Mazarin 도서관에서는 대출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다른 도서관의 장서를 대출하기 위해 추기경에게 요청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나서 자유로운 대출서비스를 생각해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의 일간지인 <Gazette de France>의 1644년 1월 30일자 기사에서⁵²⁾ “Mazarin은 자신의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학습을 위한 학술원 무리들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를 정독하기 위하여 머무른다.”라고 기사화하고 있으며, Naudé를 “생각이 깊고 현명하며 근면한 사서이자 학자로서 서적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도서관은 “살아있는 활기 넘치는 도서관”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Ranganathan의 제5법칙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⁵³⁾의 내용과 같다.

네덜란드 철학자 Hugo Grotius⁵⁴⁾와 다른 국가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도 장서를 4만권 이상 소장

51) S. R. Ranganathan, *op. cit.*, p.287.

52) Lemke의 논문에서는 Gabriel Naudé, Instructions Concerning Erecting of a Library, presented to my Lord the President de Mesme, ed. John Cotton Dana, and trans. John Evelyn, (Cambridge, Mass.: Printed for Houghton and Mifflin at the Riverside Press, 1903), iiiiv.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Clarke의 논문에는 1644년 1월 30일이라고 적혀있으나, ‘조사 결과 정확한 날짜는 1643년 11월 하순이나 12월 초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53) S. R. Ranganathan, *op. cit.*, p.326.

54) Hugo Grotius, (1583-1645) 네덜란드의 법학자로서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린다. 네덜란드의 부르주아 혁명기의 사

한 <le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독일의 17세기 학자 Johannes Lomeier는 『17세기 유럽 도서관의 견해(A Seventeenth-century View of European Libraries: Lomeier's De bibliothecis, chapter X.)』에서 “Naudé에 의해 설립되었고, 4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유한 <le Bibliothèque Mazarine>은 그 당시에 필적할 만한 도서관이 거의 없었고, 의회가 분할 매각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완벽한 도서관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⁵⁾라고 논평하였다.

IV. 결 론

Naudé는 의학을 전공하였지만, 1620년에 지도교수의 영향으로 Moreau 도서관을 접하게 된 후,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 1653년에 사망할 때까지 사서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de Mesmes 도서관(1622-1626, 1627-1629), Bagni 도서관(1629-1630), Bagno 도서관(1630-1641), Barberini 도서관(1641-1642), Richelieu 도서관(1642), Mazarin 도서관(1642-1648), Christina 도서관(1652-1653)에서 사서로 근무하였다. 이 중에서 그의 사서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도서관은 de Mesmes, Bagno, Mazarin의 도서관이다. 이 세 개의 도서관에서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 Mesmes 도서관에서는 장서 목록을 만들고,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의 저서를 작성하였다. 1627년에 작성한 『Advis……』는 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녹아있으며, 최초의 도서관학 개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연구그룹을 만들어 종교와 철학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주제전문사서와 학자사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Naudé는 사서가 된지 4년 만에 이 도서관을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 중 하나로 키웠다.

람으로서 라이든 대학에서 수학했다. 로테르담 시장으로 재직 중 종교투쟁으로 인해 종신금고 및 재산몰수의 형을 받고(1618년) 프랑스로 탈출(1620), 그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스웨덴의 주 프랑스대사가 되었다. 1645년 네덜란드에 귀국. 부르주아적 자연법 이론을 설명하고, 법과 국가는 지상적인 것이지 천상적인 기원에 의하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의 의견의 일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중세의 신학 및 스콜라학으로부터 국가 및 법을 해방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그의 저작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1625) 3권에서 자연법적 국제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55) J. Lomeier, “A Seventeenth Century View of European Libraries,” trans. J. W. Montgomery,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Librarianship, Vol.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2), p.49.

The library of Cardinal Jules Mazarin scarcely had an equal. It was collected and arranged through the efforts of Gabriel Naudé, and was enriched by the addition of authors procured in France by Pithou, Dupuy, Peiresc and others. The result was library containing more than forty thousand volumes. Among these were many manuscripts - including, in addition to others, one hundred and fifty devoted just to the mores and customs of foreign states and territories: also, regulations and endowments of all monastic foundations, colleges, hospitals, and so forth. Thus this library could soon have provided a model of the perfect library had not Parlement decreed that it be divided and sold. From the sale,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florins were collected and offered to that man who, in the period of civil uproar, had seized the cardinal himself. However, the library was reestablished, and was bequeathed to the king of France along with other personal property.

둘째, Bagno 도서관에서는 재직 도중 1633년에 Padua 대학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 최초의 참고서지 『Bibliographia Politica』를 작성하였는데, 이 서지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서 재판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의 연구그룹에서 형성한 인맥을 통해 연구지원과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원문제공은 필사한 1차자료와 함께 Naudé가 직접 작성한 2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셋째, <le Bibliothèque Mazarine>이라는 이름을 가진 Mazarin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설립에 참여하여 도서관 모토를 개방과 보편적 도서관으로 세우고, 모토에 맞는 장서개발과 서비스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Advis……』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Naudé는 이처럼 사서로서 많은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서직의 내용의 대부분은 de Mesmes 도서관에서 4년간 사서직을 수행한 후, 이탈리아의 선진화 된 도서관을 보고 와서 1627년에 작성한 『Advis……』에 정립한 이론이다. 15년 후 <le Bibliothèque Mazarine>에서 자신의 이론과 사상을 직접 실천하여 평생을 사서로서 직무에 충실하였다. 이상에서 연구한 Naudé의 사서직과 사서로서의 활동은 Naudé의 도서관 사상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의 도서관 사상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서관을 개방하였다. de Mesmes 도서관에서 제한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다가 이탈리아의 도서관들을 둘러본 후 Mazarin 도서관에서 완벽한 개방을 실행하였다.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프랑스에 보편적 도서관 사상을 도입하였다.

둘째,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도서관은 더욱 사서의 업무가 필요했다.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원칙을 세워, 광범위한 범위의 장서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장서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배가하였고, 목록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전에는 도서관이 소유주를 위해 한정적인 서비스를 했지만 Naudé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립하였다.

셋째, Naudé 스스로가 평생을 꾸준히 연구하며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학자사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서로서 동료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서비스를 하였다. 이탈리아의 학회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프랑스의 학자들에게 원문과 함께 서지 등의 2차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연구지원서비스와 원문제공서비스의 개념과 같다.

이러한 Naudé의 사상을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과의 비교하였을 때, 용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모두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비록 제5법칙은 이론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일간지의 평가에서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비유하여 Naudé가 의도한 도서관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옥. 서양의 자료분류법의 발달과정 : 고대에서 해리스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집(1993. 12), p.200.
- 남태우. 문헌정보학사. 대구 : 태일사, 2011.
- Clarke, Jack A. "Gabriel Naudé and the Foundations of the Scholarly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Vol.39, No.4(October 1969), pp.331-343.
- Hannelore, Baert. Gabriel Naudé: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1627) Édition et commentaires. Wijbegeerte, Faculteit Letteren, 2006-2007.
- Kristeller, Paul O. "Between the Italian Renaissance and the French Enlightenment : Gabriel Naudé as an Editor." *Renaissance Quarterly*, Vol.32, No.1(Spring 1979), pp.41-72.
- Lemke, Antje B. "Gabriel Naudé and the Ideal Library." *Library Associates*, Vol.XXVI, No.1 (Spring 1991), pp.24-44.
- Lomeier, Johannes. "A Seventeenth Century View of European Libra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Librarianship*, translate by J. W. Montgomery, Vol.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2.
- Mowery, Bob L. Gabriel Naudé Librarian. Degree of Master of Arts, University of Chicago, 1951.
- Naudé, Gabriel.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 Présenté à Monseigneur le President de Mesme. Paris: F. Targa, 1627.
- Naudé, Gabriel. News from France or, A Description of the library of Cardinal Mazarin. preceded by The Surrender of the Library. Chicago: A. C. McClurg, 1907.
- Naudé, Gabriel. Le Mar fore ou discours contre les libelles. Paris, L. Bovelenger, 1620.
- Naudé, Gabriel. Advice on establishing a library. introduction by Archer Taylor.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0.
- Naudé, Gabriel. Instructions Concerning Erecting of a Library, presented to my Lord the President de Mesme. edition by John Cotton Dana, and translate by John Evelyn. Cambridge, Mass.: Printed for Houghton and Mifflin at the Riverside Press, 1903.
- Naudé, Gabriel. News from France or, A Description of the library of Cardinal Mazarin, preceded by The Surrender of the Library. Chicago: A. C. McClurg, 1907.
- Ranganathan, S. R.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2nd ed.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1957.

Salvan, P. "France,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 Marcel Dekker, 2003.

Britannica Academic Edition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406634/Gabriel-Naudé?source=widget&id=2>> [cited, 2012. 5. 23].